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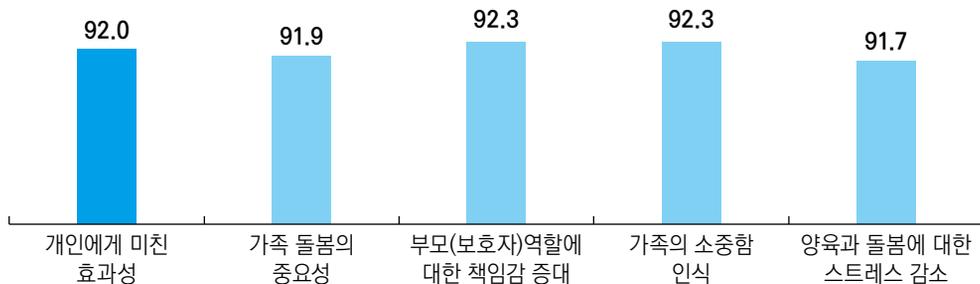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핵가족화 심화 상황에서 자녀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로 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기반이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공동육아의 필요성

그 동안의 돌봄 정책은 시설에서의 보육을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한 시설 보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단위: 점)



[그림 1]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효과

출처: 2016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동육아를 통해 영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으로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유아의 경우는 이웃과의 공동 돌봄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된다. 또한 부모는 이웃과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2016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돌봄을 통해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웃 간 품앗이 돌봄을 통해 주민 간 긴급 돌봄, 일시 돌봄 지원이 가능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 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웃 간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 관심 증가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동시설(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도 조성할 수 있다.

맞벌이가정이 겪게 되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 특히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봐주지만, 학교에 가면 저학년들은 보통 오후 1~2시면 학교일과가 끝나게 된다.

이때 맞벌이가정 자녀들은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거나 홀로 방치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돌봄을 확대하여, 마을에서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돌봄시설 미이용 아동과, 운영 사각지대(야간·주말)를 고려할 때 공동육아나눔터의 잠재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여성가족부는 핵가족화 심화 상황에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 5개소의 시범운영 후 현재 전국 16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에 함께 아이를 돌보며 정보를 교류하고 물품을 나누는 공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의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을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표 1〉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 이용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성

단위: 점

구 분	사회에게 미친 효과성	이웃을 알게 되는 기회 증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 활동에 참여할 기회 증가
전 체	92.1	92.4	92.1	91.9

〈표 2〉 시간대별 영유아 돌봄 시설

이용시간	이용대상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지원	부모·공동체 돌봄 지원
	9:00~18:00	어린이집 / 유치원	
18:00시 이후, 주말·휴일		공동육아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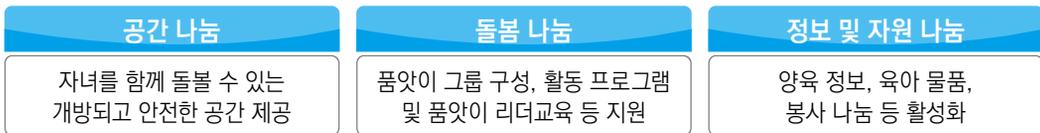
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80%가 17시 이전 하원(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정 책 동 향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웃 간 품앗이를 통해 아이를 함께 돌보고, 양육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장난감과 도서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육아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엄마의 홀로 돌봄에 따른 독박육아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봄으로써 독박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엄마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66만 명이 이용하였고, 약 15만 명이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12년 90% → '13년 91.5% → '14년 92% → '15년 92.9% → '16년 93.6% → '17년 93.8%).

하지만, 전국 시군구(226개) 기준 지역별 평균 0.7개에 불과하고, 135개 시군구에는 설치되지 않아 접근성이 낮고, 개별 나눔터별 지원이 아닌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어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개별 사업비가 감소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표 3> 2017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

연간 이용자	가족품앗이 연간 이용자	장난감·도서 대여
664,898명	63,157가구(145,157명)	103,4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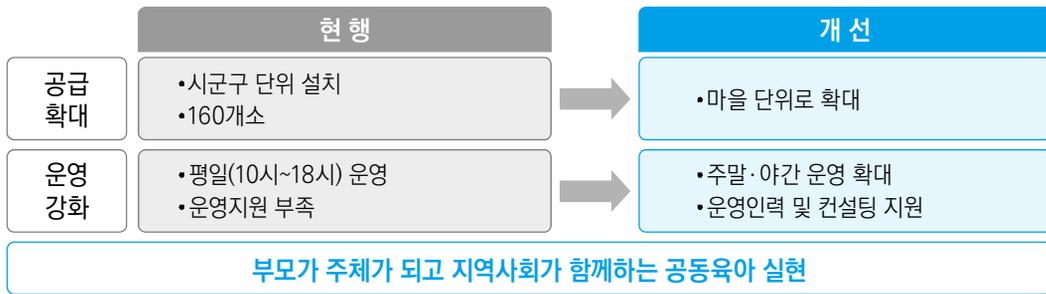
[그림 3]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사진

<표 4>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수('17년)

구 분	계	단위: 개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7개소
운영 시군구	91	53	24	6	4	1	1	2

3.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방안

가. 추진 방향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로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주민 센터 등 공공·민간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이 필요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 등 돌봄 시설 이용 후나 주말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충원하여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돌봄이 가능하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도 필요하다.

나. 공간 확보 방안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마련,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공공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대우건설 등 민간·공공 건설사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내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민간-지역-정부가 협력하는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 종교시설(교회 등) 등 접근성이 좋은 민간의 공간도 확보하여 주민공동체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 5〉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 현황

- 삼성생명 MOU('12년) : '13~'17년 현재까지 총 43개소 리모델링 및 장난감·도서 지원(50개소까지 지원 예정)
- 롯데그룹 MOU('13년) : '13~'16년 총 12개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등 지원('18년 4개소 지원)
- 신세계그룹 MOU('14년) : '14~'16년 총 5개소 공간 리모델링 및 초기 운영비 지원(중료)
- 대우건설 MOU('17.3.) : '17~'19년 3년간 15개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리모델링 지원 예정('17년 1개소)
- 경기도시공사 MOU('17.8.) : '18~'20년 '따복하우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활용 공간 조성 지원(8개소 예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MOU('17.9.) : '18~'20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내 공간 조성 지원(연 10개소 내외 예정)
- 신한금융그룹 MOU('18.1) : '18~'20년 3년간 150개소 리모델링 지원

〈표 6〉 민간 공간 활용 운영 사례

- **부산시 농협하나로마트 내 공간** 부산 농협하나클럽 문화센터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여 현재 평일 오후시간(13:30~17:30)에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 중
- **인천 서구 푸른사랑교회 내 공동육아나눔터** 교회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여 주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중
- **천안시 불당동 공동육아나눔터(이안 아파트 내 위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설치 요청, 공간은 지역사회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주민들의 장난감·도서 기부 등을 통해 단장

다. 운영 내실화 방안

공동육아나눔터의 안전 관리과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별 나눔터별로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은퇴교원, 육아품앗이 부모, 경력 단절 돌봄 교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시간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 하원 후 이용하거나, 주말에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 **(현행)** 시군구별 인건비 지원
→ **(개선)** 개별 나눔터 당 인건비 지원
- * 서울시교육청과 은퇴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8.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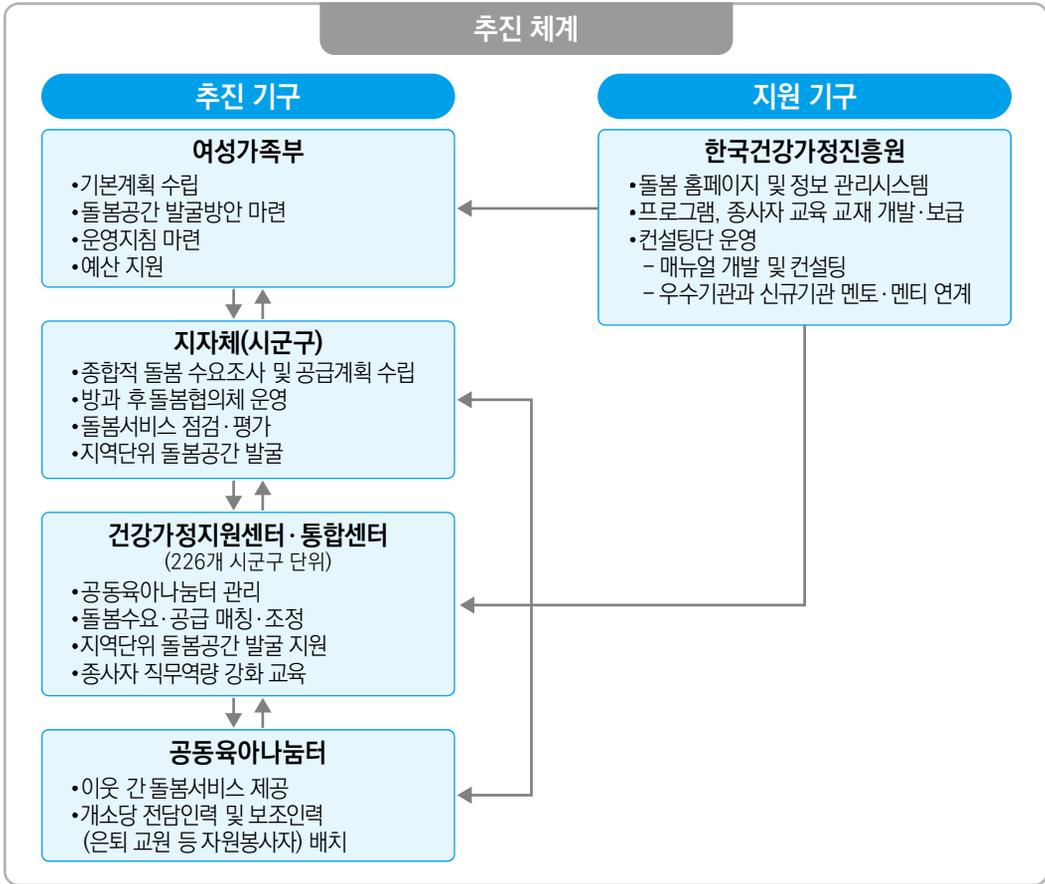
또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품앗이리더 교육, 홍보 확대,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질도 제고할 계획이다. 권역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미흡한 지역이나 신규지역을 대상으로 현안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우수 운영지역을 다른 지역과 멘토·멘티로 연계하여 우수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림 4] 컨설팅 운영 체계

라. 추진 체계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기본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및 예산 지원,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등 돌봄공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마련, 예산 지원 등 돌봄 서비스 기관을 관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전국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총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 계획 수립·실시, 프로그램 개발·지원, 담당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맺는 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를 존중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 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정한 부모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를 함께 지원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 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을공동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기반이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다.